윤일선과 정두현*

- 제국대학 의학부와 남북한 국립 의과대학의 연속/비연속 -

정종현**

〈차 례〉

1. 두 대학의 출범과 지식(인) 재편의 동인들
2. 정두현과 평양의학전문-김일성종합대학 의학부-평양의학대학
3. 윤일선과 경성대학 의학부-서울대학교 의과대학
4.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이 글은 남북한의 대표적인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김일성종합대학의 의학부 창설에 관여한 중요한 인물인 윤일선과 정두현의 이력을 통해, 제국대학 의학과 남북한 국립 의과대학이 맺고 있는 연속과 단절의 양상을 이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윤일선과 정두현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이 각각 교토제대와 다이호쿠제대 의학부를 졸업하고 해방 이후 남북한의 의학계를 이끈 대표적인 인물이면서 두 대학의 의학부 창설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적으로는 사돈 관계였던 이들의 이력을 통해서 해방 후의 국립서울대안 파동 및 남북한으로의 의료인의 이동의 문제가 단지 이데올로기 차원뿐만이 아니라, 엘리트주의와 오랜 지역주의의 문제 및 세대와 처우의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한의 분단이 고착되고 냉전이 시작되면서 윤일선과 정두현의 삶과 지식의 행로는 각각 미국과 소련에 의해 커다란 변화에 맞닥뜨리게 된다. 윤일선은 부총장, 총장을 역임하면서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유치하여 남한 의학계의 미국화를 실현하였다. 정두현의 경우 북한에 수입되어 맹위를 떨치던 미추린-리센코주의를 거부하고 멘델-모건 유전학을 고수하다가 의학-지식계에서 밀려나게 된다. 이러한 두 사람의 행로는 제국(대학)의 의과학 지식이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의과학 지식으로 재편되어가는 과정의 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22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형기획총서사업(AKS-2022-KSS-1120009) 및 인하대학교(73133-1)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어문학과 교수

[주제어] 윤일선, 정두현,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일성종합대학교 의학부, 경성의학전문학교, 평양의학전문학교, 고등교육체계의 지속과 단절, 냉전의 의학지식 재편

1. 두 대학의 출범과 지식(인) 재편의 동인들

이 글은 국립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교의 의과대학 설립을 중심으로 두고 식민지 고등교육 제도의 유산 위에서 남북한이 분단된 제도를 형성하면서 냉전적 경합을 전개해간 한 양상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범위한 주제인 만큼 이를 예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두 대학의 의과대학 설립을 주도한 윤일선과 정두현의 삶과 이력에 초점을 맞추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일 것이다. 개인의 역사는 특수한 미시사의 영역이지만, 때로는 특정한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 제도와 관련해 거시적 문제를 압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통로이기도 하다. 윤일선과 정두현은 식민지 제국대학의 의학 교육을 거쳐 해방 이후 각각 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교의 의과대학 창설에 관여하며 분단된 의학 교육 제도 수립의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냉전이 본격화하며 두 대학이 미국과 소련의 지식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그 삶의 행로가 결정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점에서 식민지와 후(post)식민지 한국 의학 지식제도를 비교하는 데 좋은 표본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생애를 본격적으로 검토·비교하기에 앞서 해방 이후 이들이 활동한 두 대학의 설립을 둘러싸고 벌어진 국대안 파동과 김일성대학의 설립 및 이로부터 파생된 지식인의 이동에 작용한 여러 동인들을 이해해 보자. 1946년 7월 13일 ‘국립서울종합대학안(국대안)’이 발표되었다. 경성제국대학을 승계한 경성대학과, 식민지 시기 설립된 서울과 근교에 있던 아홉 개의 관립전문학교(한 개의 사립전문학교 포함)를 하나로 통합하여 아홉 개의 단과대학과 한 개의 대학원을 두고, 이를 이사회가 통괄하는 안이었다. 북한에서도 북조선 종합대학 창립준비위원회가 조직되어 1946년 7

월 8일 '북조선종합대학 창립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했다. 7개 학부 24개 학과의 대학을 평양에 창설하며 그 교명을 김일성종합대학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이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기존 평양의학전문학교(평양의전)와 평양공업전문학교(평양공전)를 대학으로 승격하여 종합대학으로 편입하고 노동자 농민의 자녀로서 중등학교를 미필한 자를 위한 3년제 예비과를 설치하였다.

서울의 '국대안'은 곧바로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다. 이러한 반대는 신념을 달리하는 여러 세력간의 교육 개혁 주도권 장악을 둘러싼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갈등과 경쟁을 주로 좌우익이란 정치 이념의 한 차원에서만 검토해 온 측면이 있었다.¹⁾ 또한, 지식인의 남북으로의 이동의 원인도 이념에 따른 '월남'과 '월북'으로 수렴하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이 시기 지식인의 월남, 월북에서 중심 요건은 '대학 선택'이라기보다는 '체제 선택' 쪽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국대안'의 갈등이나 지식인의 남북으로의 이동은 체제 선택(이데올로기)이라는 중심적 요인뿐만 아니라 여러 차원의 복잡한 종속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두 대학의 설립에 작용한 복잡한 동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념(이데올로기)의 문제와 더불어 다음의 네 차원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살피고자 하는 그 네 가지 요소는 첫째, 엘리트주의, 둘째, 경제적 동인(급여와 처우), 셋째, 세대-네트워크, 넷째, 지역의 문제이다.

1) 엘리트주의

1945년 10월 16일자로 미군정 학무국은 조선교육위원회(Korean Committee on Education)의 추천을 받아 경성대학의 법문학부장 백낙준, 의학부장 윤일선, 이공학부장 최규남(대리), 예과과장 현상운을 임명했다. 나중에 국립서울대학교로 편입될 국립전문학교의 교장도 발표되었는데,

1) 이러한 지적은 김기석, 「국립서울대학교의 창설에 관한 일 연구」, 『일란성 쌍생아의 탄생 1946:국립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의 창설』, 교육과학사, 2001, 13쪽 참조.

경성공업전문학교에는 안동혁, 경성사범학교에는 장리욱, 경성여자사범학교에는 손정규, 경성광산전문학교에는 최윤식, 수원농림전문학교에는 조백현 등이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인선안이 발표되자 경성대학 법문학부 및 예과 그리고 경성사범의 자치위원회와 학생들이 학무국의 인사 조치에 즉각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학생들은 ‘친일파’로 알려진 인물들을 부장이나 교장으로 임명한 조치에 반대했으며, 교수 부족으로 타 대학에서 몇몇 학생을 경성대학으로 전학 승인한 조치에 대해서도 반대하였다. 타 대학 학생들이 경성대학 학생으로서 자격이 미달한다는 것이 전학 조치에 대한 반대의 이유였다.

경성대학 학생들이 반대한 구체적인 인사는 법문학부장 백낙준, 예과과장 현상윤이었다. 백낙준은 예일대학교 박사로 연희전문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상윤은 와세다 대학 출신으로 보성전문 교수를 역임했다. 갈등을 빚은 지 오래지 않아 백낙준은 연희대학 학장으로 현상윤은 보성전문학교 교장을 맡아 옮겨갔다.²⁾ 자치위원회와 학생들이 내세운 표면적인 반대 이유는 두 사람의 친일 이력이었다. 그렇지만 경성제국대학 출신으로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반대에는 비 제국대학 출신의 외부인에 의한 대학 접수에 대한 거부감도 함께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기서 타 전문학교의 학생들을 경성대학으로 전학 승인 조치한 것에 대해 자격 미달이라며 반대한 경성대학 학생들의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곧이어 제국대학과 전문학교의 통폐합이 시도되면서 이 문제는 크게 불거지게 되기 때문이다. 1946년 4월,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통합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조치

2) 백낙준과 현상윤 외에도 경성사범학교 교장으로 임명된 장리욱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반대가 있었다. 장리욱은 컬럼비아 대학에서 대학원을 마친 교육학 박사로 선천 소재 미국 개신교가 설립한 신성중학교장을 10여년 간 지내다가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교장직에서 해직된 다음 평양에서 자동차 수리공장의 명목상 책임자로 있었다. 학생들은 자동차 공장 사장인 장리욱이 경성사범의 교장이 될 수 없다고 문제삼았다. 장리욱은 당시 경성사범의 교원이었던 김택원의 지휘 아래 경성사범의 좌익학생들이 자신의 교장 취임을 반대했다고 이해하고 있다. 또한 그가 취임한 이후에도 자신을 추천한 한국교육위원회가 과거 친일했던 사람들로 구성된 것으로 친일한 사람들이 추천한 장리욱도 친일파라는 논리를 펴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학생들과 면담하며 다독이고 경성사범을 이끌어 갔다고 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장리욱, 『다시 읽는 장리욱, 백년 전의 꿈』,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170~173쪽 참조.

에 대해서 경성대학 의학부장이었던 윤일선은 ‘최고 엘리트를 양성하는 대학의 의학부를 전문학교와 통합할 수 없다.’³⁾며 반대하였으며, 경성대학 의학부 학생들은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이 의과대학 수업에 참석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였다. 경성대학 교수와 학생들의 인식의 저변에는 전문학교와 구별하고자 하는 엘리트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의학부의 파동 이후 본격화되는 ‘국대안’에 대해서 반대측이 내세운 핵심적 이유는 행정 관료만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인사와 재정 등 대학 운영의 최종적 결정권을 갖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반대 측에서는 미국식 대학 제도에서 일반적이었던 이사회에 의한 대학 운영을 반대하고 교수회의가 주요 결정권을 갖는 제국대학의 교수자치, 대학자치 관행을 대학 내 민주주의로 제시하였다. 교수자치는 국대안 파동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였다. 국대안을 주도한 오천석 등은 제국대학의 교수자치의 관행을 기득권으로 간주했으며, 당시 한국 내 유일한 대학이었던 경성(제국)대학의 3개 학부를 복잡하게 나누고 더함으로써, 즉 해체 재구성함으로써 제국대학의 유산·유제와 시스템을 단절시키려 했다.⁴⁾ 경성경제전문학교, 경성치과전문학교,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 등이 모두 승격하여 상과대학, 치과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의 개별적 단과대학이 되고 전문학교가 존재하지 않던 예술대학이 신설된 반면, 경성(제국)대학의 핵심 3개 학부 중 법문학과와 이공학부는 분해된 뒤 다른 전문학교와 통합되었다. 경성(제국)대학의 핵심이었던 법문학부의 경우 문학부는 이학부와 합해져 문리과대학이 되었고, 법학부는 경성법학전문학교와 합해져 법과대학이 되었다. 이공학부는 이학부와 공학부가 분리된 후 공학부는 경성공업전문학교·경성광산전문학교와 통합돼 공과대학이 되었다. 의학부는 경성의학전문학교와 통합해 의과대학이 되었다. 국립서울대안은 사립전문학교들이 모두 독립적인 대학으로 승격해 식민지의 유산과 경험을 확산시켜

3) 오천석, 『외로운 성주』, 광명출판사, 1975, 101쪽.

4) ‘국대안’이 제국대학의 유제를 청산하려는 시도라는 관점은 정병준, 「해방 후 장리욱의 교육활동」, 장리욱, 위의 책, 474~480쪽 참조.

가던 것과는 다른 경로가 취해졌음을 알 수 있다. 교수자치, 대학자치가 과연 학문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장치인가, 아니면 제국대학 기득권의 보루인가를 두고 국내안의 주도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 관점이 극명하게 갈라졌다. 다만, 대학 자치를 실현하려다 월북해 김일성 종합대학교 창설의 주역이 된 제국대학 출신들이 당과 정부(교육성)의 장악력이 강했던 김일성종합대학교에서 교수자치, 대학자치를 주장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 경제적 동인

1946년 설립된 국립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교는 “일란성 쌍생아”⁵⁾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 제국대학이 육성한 인적 자원을 둘러싸고 두 대학은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남한에서 국내안 파동이 교수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힘으로 작동했다면,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의 설립은 이들을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동했다. 『김일성종합대학 10년사』에서는 남한 학자들이 북으로 이동한 중요한 요인으로 민주개혁이 이루어지는 체제의 우위와 민족간부 양성의 소명 의식을 꼽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의 출발이 애국미 운동을 비롯한 인민의 물질적, 정신적 지지를 받았던 점도 학자 집단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김일성종합대학 10년사』는 당과 정부가 “유리한 경제적 및 사회적 조건들을 조성함으로써”⁶⁾ 남반부 교수 학자들이 김일성종합대학으로 올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에서 교수 학자들의 이동에 작용한 요소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10년사』에는 그 경제적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시되어 있진 않지만 당시의 여러 자료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교의 1947년 교원봉급표에 따르면, 총장은 매월 3,000원, 학부장 및 강좌장 등의 부장급은 2,500원,

5) 김기석, 앞의 책.

6) 『김일성대학 10년사』, 김일성대학출판부, 1956년, 22쪽.

일반교수는 1,500-1,800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당시 임시인민위원장 김일성이 4,000원, 핵심관료인 인민위원회 과장급은 1,5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⁷⁾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의 봉급은 이전 전문학교 시절에 비해 파격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의학부장 정두현이 평양의학전문학교 교장 때 받은 봉급은 월 450원이었는데, 1947년 당시 김일성종합대학 의학부의 한 교원은 본봉 1,500원, 겸직인 대학병원과 평안남도 위생시험소에서 각각 1,500원을 받아 함께 4,500원의 봉급을 받고 있었다.⁸⁾ 해방 직후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봉급은 이전의 처우에 비해 월등히 상향된 것이었다. 또한 김일성종합대학교에서는 ‘건국의 집’이라는 관사를 지어 교직원들에게 배정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⁹⁾ 북으로 간 학생들이 돈 때문에 이동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모독하는 것이겠지만, 이러한 경제적 처우 또한 하나의 동인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학교로부터 김일성종합대학교로의 이동만큼은 아니지만, 그 반대로의 이동도 발생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이동의 계기로는 대학의 통제와 자유의 억압 등이 지목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도호쿠제대 철학과 출신으로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부 교육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 월남하여 서울대에서 교수 생활을 한 김기석은 자신이 월남하게 된 계기로 교수가 교수를 상호 감시하는 보고서를 써야 하는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¹⁰⁾ 김일성대학 예비과의 수학과 주임교수 유재하도 “이북의 공산주의 교육정책에 불만을 품고”¹¹⁾ 월남했다고 그 계기를 밝히고 있다. 두북대학과 콜롬비아대학에서 수학하고 신성학교 교장을 역임하다가 해방 후 평양에서 건준과 평남 인민정치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중 월남하여 경성사범학교 및 서울대 총장을

7) 김성보, 『북한의 역사』 1, 역사비평사, 2011, 103쪽.

8) 배만규, 「격랑 속에 흘러간 세월」, 『平醫』 19, 평의동창회, 1988, 145쪽.

9)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김수경 교수의 아들 김태정은 기억을 더듬어 자신이 살던 김일성종합대학 관사 ‘건국의 집 4호’ 평면도를 복원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타가키 류타, 『북으로 간 언어학자 김수경』, 푸른역사, 2024, 415쪽 참조.

10) 정병준, 앞의 글, 490쪽.

11) 「김일성대학의 교수 유재하씨 월남 귀순」, 『자유신문』, 1949년 2월 25일자.

역임한 장리욱도 자신의 월남을 정치적인 이유에서 찾고 있다. 평남인민정치위원회에 참가하면서 좌익들의 “속셈이라는 것이 너무나 뻔히 보이는 붉은 수범이라 역겨워 더 이상 그들과 더불어 일할 것을 단념”하고 “교통과 통신이 두절되어 서울의 정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서울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는 생각”¹²⁾에서 무작정 서울로 갈 것을 결심하고 월남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체제 선택(이념)이 중요한 계기였지만 미국에서 공부한 장리욱에게는 미군이 진주한 서울이 보다 많은 기회가 있는 곳이자 정치적으로도 더욱 안정적인 곳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월남했을 것이다. 이처럼 남북한으로의 이동의 계기는 이념과 체제 선택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와 함께 그들을 초빙하고자 제공한 다양한 처우나 사회적 기회가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세대-네트워크

김일성종합대학교 문학부 전임교원의 상당수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1947년 1월 6일 현재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부 소속 교원 40명 중 경성제대 법문학부 출신자들은 총 12명이다. 그들은 김일성종합대학이 개교하며 초빙된 초창기 교원들이었다.¹³⁾ 특히 그 중에서도 1934년도 예과 11회 입학생들인 이명선, 김수경, 김석형, 신구현, 최학선, 고광학 등의 독서회 구성원들이 이채롭다. 이들은 독서회를 통해 사회주의를 받아들였고 경성콤그룹 사건과 조선공산주의협의회 사건 등으로 투옥되었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경력을 통해 “경성제대와 김일성종합대학이 학적 연속성뿐만 아니라 운동사적 연속성”¹⁴⁾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

12) 장리욱, 앞의 책, 163쪽.

13)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부 소속 교원 명단-1947년 1월 6일 현재', 정종현, 「국어국문학과 조선어문학의 분단:설립 초기 국립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와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의 비교연구」, 『동악어문학』, 동악어문학회, 2021, 75~77쪽. 경성제대 법문학부 출신은 신구현, 박종식, 노대규, 한재호, 이영수, 김수경, 최학선, 고광학, 박시형, 김석형, 엄무현, 김득중이다.

14) 김태운, 「북한 간부이력서를 통해 본 일제 말 사회주의 운동과 네트워크의 연속성: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독서회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2, 2020, 181쪽.

다. 그렇다면, 경성제대 법문학부 출신들, 그중에서도 특정한 세대가 대거 김일성종합대학으로 간 까닭은 무엇일까?

신생 김일성종합대학이 직면한 최대 고민은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는 문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은 당시 북한에 체류하고 있던 진보적 지식인들을 초빙했지만, 제대로 된 교수진을 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김일성은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올 데 대하여」(1946. 7. 31.)¹⁵⁾를 통해서 우수한 남한의 학자들을 교수로 채용하는 방침을 밝혔다.

김석형과 박시형, 신구현과 김수경 등 경성제대 예과 11회생들은 이러한 북한 정권의 필요에 적합한 대상이었다. 초창기의 김일성종합대학고는 서울대학교 못지않게 제국대학의 인적 집단을 승계했다. 아카데미 출신의 전문성과 더불어, 동시에 인민의 대학을 표방했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적 세계인식과 실천을 지향하는 지식인이 필요했다. 독서회 활동과 경성콤그룹 및 그 후속 조직인 조선공산주의협의회¹⁶⁾ 사건에 연루되어 옥살이를 경험한 경성제대 예과 11회생들은 제국대학이라는 전문성과 사회주의적 사상성 및 실천의 경력이 결합된, 북한 정권이 바라던 최적의 교원 후보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과 11회생들의 입장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은 어떻게 다가왔을까? 토지개혁의 결과로 받은 농토에서 얻은 소출을 자발적으로 헌납한 애국미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인민의 대학'에서 복무한다는 진보적 지식인의 자긍심이 그들을 이 대학으로 이끌었겠지만, 보다 현실적인 이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과 11회 입학생들은 경성제국대학의 초창기 졸업생들 즉 1·2·3회생들에 비해서 10년여의 차이가 있는 신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15) 『김일성전집』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66~69쪽.

16) 김태윤은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부의 교원 이력서에서 경성제대 11회 입학생 김석형, 박시형, 김득중이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 활동으로 함흥 형무소 수감 이력을 적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그들의 형무소 수감 기간과 수감처는 당 가입 보증인인 서중석의 투옥 시기 및 장소와 일치한다. 1944년 결성된 조직인 공산주의자협의회는 일본의 패전을 예상하고 국의 무장투쟁과의 연계를 모색했던 단체였다. 소련에 김재갑과 김재수를 연안에 김태준을 파견하여 무정과 김일성과의 국내의 군사대책을 논의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 여정을 적은 것이 김태준의 『연안행』이었다. 김태윤은 이 조직을 경성콤그룹의 후속단체로 이해하고 있다. 김태윤, 앞의 책, 165쪽.

사상에 공명하고 있던 그들은 미군정에 의해 포고된 ‘국대안’과 서울대학교의 출범에 비판적이었다. 국대안 논의의 비민주성 등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현실적인 차원에서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새로 출범하는 서울대학교의 문리과대학에 이들 젊은 세대의 자리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경성제대 시절 김수경과 사제 관계였던 언어학자 고바야시 히데오가 패전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들은 바에 따르면, 김수경은 조교수로서 언어학 강좌를 승계할 것으로 ‘내정’되어 있었다고 한다.¹⁷⁾ 경성대학 자치위원회 내부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상은 미군정에 의해 무산되었다. 나중에 실제로 그 강좌를 맡은 것은 이희승이었다.

국대안의 파란을 거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와 교수진은 가람 이병기, 조운제, 방종현, 이희승, 이승녕의 다섯 명의 전임교수 체제로 자리 잡았다. 김일성종합대학으로 전직하기 전에 11회 예과생들 대부분은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대학에 자리 잡았던 것은 경성경제전문학교(국대안 이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의 김수경과 서울대 사범대학에 출강하던 김석형 정도였다. ‘조선학(한국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과거 ‘문학부’의 후신인 문리과대학의 전임 교수직은 선배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들 신세대들에게 새로 설립된 김일성종합대학의 ‘문학부’ 전임교원 임용은 남한에서는 보장되지 않는 안정적 위치에서 정치적, 윤리적으로도 더욱 우월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학문적 포부를 펼칠 기회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처럼 제국대학 출신들의 김일성종합대학으로의 이동의 문제에서는 세대와 특정한 인적 집단의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지역

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교를 설립한 식민지 교육체제의 유산과 그

17) 이타가키 류타, 앞의 책, 120쪽.

인적 집단의 이동을 이해하고자 할 때 ‘지역’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서울과 평양은 단지 이데올로기로만 대립한 것이 아니다. 『윤치호 일기』에는 서북(西北)파와 기호(畿湖)파의 대립 및 지역감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안창호 씨가 지역감정의 소유자여서, 기호인들의 노력으로 독립을 얻을 것 같으면 차라리 독립되지 않는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 서북인들은 기호인들에 대해 커다란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¹⁸⁾거나, “오후에 안창호 씨가 수감되었다. 김활란 양이 내가 안씨 석방을 위해 당국자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에 분개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승만계와 서북파를 이끌고 있는 안창호계 간의 불쌍 사나운 다툼이 마침내 서울까지 다다른 것 같다.”¹⁹⁾ 등은 그 사례이다.²⁰⁾ 윤치호 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양(서북)은 오랜 동안 차별을 받아 왔으며 서울에 대한 경쟁 의식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거꾸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기호의 엘리트층들은 서북에 대한 경멸과 차별의 태도를 감추지 않았다.

무엇보다 식민지의 고등 교육 체제는 경성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었다. 1925년 이전까지 전문학교는 모두 경기도(경성 포함)에 설립되었다. 1925년에는 전체 10교 중 9교, 1935년에는 전체 15교 중 12교, 1945년에는 전체 20교 중 13교가 경기도에 설립되어 있었다.²¹⁾ 당시 북한 지역에 있던 관립 전문학교는 평양의학전문학교와 대동전문을 인수하여 설립된 평양공업전문학교, 해방 직전인 1944년에 설립된 함흥의학전문학교 등 3개교 뿐이었다. 1945년 여름에 평양 등 북한 지역에 살고 있던 대학 및 전문학교 졸업자는 30~40명 내외였으며, 이학 계통의 조선인 교수는 대동공업전문학교에

18) 윤치호 지음, 박미경 옮김, 「1920년 8월 30일자 일기」, 『국역 윤치호 영문일기 8(한국사료총서 번역서 8)』, 국사편찬위원회, 2016. 이하 일기 날짜만 표기.

19) 『윤치호 일기』(1932년 7월 15일)

20) 이외에도 서북파와 기호파의 대립에 대한 일기가 남아 있다. “이조 500년 동안 서북인들은 정치적 박대와 모욕적인 차별을 받아왔다. 서북인들이 기호인들, 특히 지배계층으로 군림했던 기호인들을 증오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윤치호 일기』, 1921년 6월 4일) “두 파벌이 이제는 서울에서 더욱더 적대적인 양상을 연출해가고 있다. 서북파의 지도자인 안창호 씨가 이런 말을 했다. ‘먼저 기호 사람들을 제거하고 난 후에 독립해야 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다”(『윤치호 일기』, 1931년 1월 8일)

21) 김자중, 『한국 대학의 뿌리, 전문학교』, 지식의 날개, 2022, 254쪽.

단 세 명 뿐이었다.²²⁾

김일성종합대학교는 평양의전과 평양공전을 토대로 설립되었다. 평양의전은 식민지 시기 이 지역의 의학 교육을 전담했으며, 이후 김일성종합대학 의학부의 설립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평양의학전문학교의 경우, 재학생 중 평안남도 원적자의 비율은 1934년에 50.4%로 매우 높다. 이는 그 밖의 전문학교 재학생 중 평안남도 원적자의 비율이 약 5-15%이고, 같은 의학계 전문학교인 경성의학전문학교와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의 재학생 중 평안남도 원적자의 비율이 약 10-15%인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렇게 각 지방에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은 해당 지방민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김일성종합대학교의 의학부의 설립은 이러한 지역에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설비를 물적 토대로 하고 그 출신자들을 인적 자원으로 삼아 진행되었다. 그런 점에서 지식인들의 김일성종합대학으로의 이동은 이데올로기적인 월북도 있었지만, 자기 고향(공동체)으로의 회귀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평양의 경우는 평양이 새로운 정치적 권력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을 고향으로 하는 이들에게는 보다 많은 기회가 열려 있는 곳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이제부터 이상의 사항을 고려하면서 두 대학의 의과대학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두현과 윤일선의 삶의 이력을 통해 제국(대학)-분단-냉전으로 이어지는 근대 한국의 의학 지식제도의 한 단면을 살펴보도록 하자.

22) 김기석, 앞의 책, 66쪽.

2. 정두현과 평양의학전문 김일성종합대학 의학부-평양의학대학

1) 정두현의 출신 배경과 제1차 일본 유학

정두현(鄭斗鉉, 1888~?)은 평양의 유지였던 정재명(鄭在命)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세 개의 제국대학에서 배우고 평양의 교육계에서 활약하다 해방 후 김일성종합대학교 설립을 주도하며 의학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전통 사회에서 차별받던 서북 출신으로 근대교육의 순례를 거쳐 북한의 최고학부 설립을 주도하고 학장이 되기까지 그의 삶의 행로를 따라가보자.²³⁾

정두현의 학력은 비현실적이라 느껴질 만큼 화려하다. 정두현은 메이지학원(明治學院) 중학부를 거쳐 도쿄(東京)제국대학 농학부(1910. 4~1914. 7) 유학 후에도, 도호쿠(東北) 제국대학 이학부(1927. 4~1930. 3), 타이완의 다이호쿠(臺北)제국대학 의학부(1938. 4~1941. 12) 등 세 곳의 제국대학에서 공부했다. 식민지 시기를 통틀어 세 곳의 제국대학에서 농학·생물학·의학 등 각기 다른 전공을 이수한 사람은 정두현이 유일하다.

그를 이런 엘리트로 기른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 그의 부친 정재명의 이력은 정두현의 이력서와 자서전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공직자, 노동당원, 학생 등에게 자서전과 이력서를 요구했다. 이력서에는 1개월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경력을 기재해야 했다. 자서전은 작성자의 구체적인 개인 역사를 담았다. 자서전에는 과거 경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평정서가 첨부되었으며, 보증인이 이 경력을 확인하고 보증함을 수결했다.²⁴⁾ 평양의 학대학 학장을 지내던 1948년 10월에 정두현이 자필로 쓴 이력서와 자서전

23) 정두현의 삶의 행로는 정중현, 「식민과 분단으로 서로를 지은 '평양'의 형제: 정두현과 정광현」, 『특별한 형제들』, 휴머니스트, 2019와 김근배, 「정두현」, 김근배·이은경·선유정 편저, 『대한민국 과학자의 탄생』, 세로, 2024 및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24) 북한에서 교원, 학생, 공무원 등에게 요구되었던 이력서와 자서전, 평정서 등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김재웅, 『고백하는 사람들』, 푸른역사, 2020을 참조할 것. 이 책은 미군 노획문서에 있는 879명의 이력서와 자서전을 통해 1945~1950년 북한 정부 수립기의 권력과 대중 사이의 글쓰기의 정치학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에 따르면²⁵⁾, 그는 “평양 시외 농촌의 유족지 못한 농가에서 출생”하여 “한학에 소양이 있고 조국애가 깊으며 교육열이 왕성한 부친의 엄격하고도 이해 많은 훈도 밑에서” 자랐다.

자서전은 아버지 정재명이 “대한독립협회 평양지회장, 서북학회 평남지부장으로서 조국의 독립 보전을 위하여 분투”했고, 새로운 교육의 진흥을 위해 동지들과 “평양 시내에 사범강습소를 개설하여 애국적 신식 교원을 양성하는 데 주력”했으며, 당시 메이지학원 중학부에 재학 중이던 정두현 자신도 방학을 맞아 아버지를 도우면서 교육자로서 소명을 다하기로 결심했다고 적고 있다. 애국지사인 아버지에 대한 긍지와 교육자 집안에 대한 정두현의 자부가 느껴진다.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 아버지 정재명은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독립협회·태극학회·서우학회·서북학회의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공립 평양보통학교 학무위원과 평양부협의회 의원, 금융조합장을 지냈다.²⁶⁾ 이러한 정재명의 면모에 대해서 사돈인 윤치호의 인물평이 남아 있다.²⁷⁾ 윤치호는 정재명이 “품위 있는 신사로서 말과 행동이 기품 있다”고 평했다. 신사 정재명은 개화파 지사이면서 식민지 토착 사회의 유지였다. 하지만 정두현의 자서전에는 부친의 식민지 시절 이력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집안의 경제력에 대해서도 이력서에는 간략하게 쓰여 있다. 정두현은 자기 출신을 ‘중농’으로 기재하고, 해방 전 부모의 재산을 주택과 토지 2,000평, 토지개혁 때 몰수된 부모의 토지도 2,000평으로 기록했다. 집안의 전 재산

25) 정두현의 이력서와 자서전은 미국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보관되어 있으며, 여기서 인용하는 이력서와 자서전은 과학사 연구자인 김근배 전북대학교 교수가 미국에서 직접 촬영한 것을 바탕으로 옮긴 것이다.

26) 정궁식, 「설송(雪松) 정광현(鄭光鉉) 선생의 생애와 학문의 여정」, 『법사학연구』 54, 2016. 10, 168~169쪽.

27) 정두현의 동생으로 도쿄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해방 후 서울대학교 교수가 된 정광현은 윤치호의 셋째 딸 윤문희와 결혼했다. 정광현이 윤치호의 사위가 된 것은 큰 사건이었다. 윤치호는 1929년 3월 12일자 일기에 오후 4시 YMCA회관 강당에서 열린 결혼식과 명월관에서 250명의 하객에게 1인당 1원 30전짜리 식사를 대접한 피로연을 기록한 뒤, “저명한 서울 가문에서 평양 출신 남자를 사위로 맞는 것은 우리 가문이 처음이다. 난 조롱과 비난, 심지어는 욕을 듣게 되리라. …… 이번에 맞은 내 평양 사위가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줄지 바란다”

이 2,000평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아마도 3형제에게 분재한 후 남은 토지였을 것이다. 2,000평 농사로 두 아들의 10여 년 유학비를 감당하는 건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²⁸⁾

1907년 ‘현해탄’을 건너간 정두현은 먼저 사설 도교수학원(數學院)과 세이소쿠(正則)학교를 다니며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수학과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이어서 1908년에 기독교계 사립 메이지학원 보통학부 4학년으로 편입했다. 이 학교는 조선의 교회들과 유대 관계가 있어서 조선에서 중등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조선인 유학생들이 많이 진학한 학교의 하나였다. 첫 조선인 학생은 1900년에 입학한 한민제(韓民濟, 의사)였으며, 작가 이광수와 사학자 문일평은 정두현보다 한 해 앞선 1906년에 입학해서 정두현과 함께 다녔다. 조선인 학생들은 대개 20세 전후로, 평균 10대 중반이었던 일본인 학생들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았다. 메이지학원 보통학부는 5년제 중등과정으로, 고등교육기관 진학에 필요한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당시의 학교 일람을 보면, 국어 한문과 영어, 수학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수산, 역사, 지리, 박물 물리 및 화학, 습자, 도화, 체조 등은 시간이 적게 배정되었다. 정두현은 대한홍학회와 같은 조선인 유학생 단체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메이지학원 고등부나 사립 대학에 많이 진학했으나 정두현의 선택은 달랐다.

그는 1910년 4월 통감부에서 선발하는 관비 유학생 보결시험에 지원하여 합격했다. 당시 『황성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총 60명의 지원자가 한문, 이과, 수학, 역사, 지리 등에 관한 시험을 치러 8명이 선정되었다. 합격자는 모

28) 「평남지주회 창립협의회」, 『매일신보』 1928년 11월 9일자에 따르면, 평남지역의 지주 9명이 모여 ‘소작관행개선결의’ 등을 협의했는데, 이 협의회의 좌장으로 정재명이 피선되었다. 정재명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가늠케 해주는 기사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직후 북한의 이력서와 자서전 작성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은 드러내고 불리한 내용은 감추는 글쓰기 전략을 취했다. 정두현 역시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논란이 생길만한 경력은 이력서와 자서전에서 생략했다. 아버지의 재산 정도도 그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도 그는 평양 ‘인정도서관’ 관장으로 경성제국대학에서 열린 제국 일본의 ‘도서관대회’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 이것은 본격적인 친일 행위는 아니었지만, 해방 직후의 북한에서는 논란이 될만한 경력이었다. 이러한 생략과 왜곡은 평정서 작성자들에게 의해 대부분 밝혀졌는데, 정두현의 경우는 ‘다행히’(?) 그럴 염려가 없었다. 평양의학대학 학장이었던 그는 자신의 이력서와 자서전에 대한 평정을 스스로 했기 때문이다.

두가 조선 혹은 일본에서 중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었다. 정두현은 관비 유학생으로 선발된 후 상급학교 학업에 필요한 영어를 더 공부하기 위해 사설 세이소쿠 영어학교를 6개월간 다녔다. 1911년에 그는 도쿄제국대학 농과대학 농학실과에 진학했다. 통감부가 관비 지원을 받는 학생들에게 농상공과 같은 실업계 전문학교의 진학을 장려했으며, 그 자신도 실제적인 과학 분야의 학업에 흥미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도쿄제대 농학실과는 농과대학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상 전문학교 과정이었다. 원래 1886년 도쿄농림학교로 출발하여 일시적으로 도쿄제대 농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당시의 도쿄제대 일람을 보면, 정두현이 입학할 당시에 조선인 학생으로 2학년 유태로, 3학년 윤태중이 재학하고 있었다. 농학실과를 졸업한 후 그는 1914년부터 1년간 농과대학 농학교실에서, 1915년부터 1년간은 농과대학 동물학교실에서 연구활동을 했다. 이 즈음에 도쿄독일어전수학교에도 진학하여 2년 과정을 마쳤다. 이처럼 대략 10년에 걸친 제1차 도일 유학을 일단락지은 정두현은 1916년 9월 평양으로 돌아왔다.

2) 제2차 유학과 평양에서의 사회적 실천

평양으로 돌아온 정두현은 광성학교 고등과 교사로 취직했다. 연구 경력을 쌓았지만 당시 권업모범장 등의 관립 시설에서는 조선인을 채용하지 않았고, 수원농림학교에는 먼저 졸업한 농업실과 선배들이 임용되어 빈 자리가 없었다. 광성학교에서는 식물 인체 생리 및 위생, 동물, 농업 등 이과와 실업과목을 가르쳤다. 1919년에는 기독교계 사립 송덕학교로 옮겨 교감을 맡아 근무하던 중 3·1운동을 맞이하게 된다.

정두현은 자서전에서 “1919년 평양에서 일어난 3·1운동이 내가 당시 책임자로 시무하던 송덕학교 교정에서 봉화를 들게 된 관계 이외에 해외 독립운동 기관과도 약간의 연락이 있던 사실에 의거하여 드디어 평양형무소에서 수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게 되었다가 특별한 공작 실행이 없었던 관계로

방면되었”다고 술회했다. 3·1운동 당시 평양에서는 운동의 시작을 알린 송덕학교에 1,000여명이 모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송덕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나눠 준 태극기를 흔들며 시내로 행진했다. 교사와 학생들에게 독립선언식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던 정두현은 시국 사건에 관여한 죄목으로 평양 형무소에서 3개월 동안 고초를 겪었다. 3·1운동 당시 정두현의 역할은 검거된 송덕학교 교사 광권웅의 심문조서와 당시 검사국의 ‘조선소요사건’ 관계 서류에서 확인된다. 광권웅은 송덕학교에서 고종의 봉도식과 예배 및 만세운동 등이 있었는데, 교감 정두현이 학생들과 교사에게 이 집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고 진술하고 있다.²⁹⁾

3·1운동 후 3개월여간 구금되었다가 7월에 출옥한 정두현은 청년들의 애국사상 고취와 교양 향상을 목적으로 ‘평양청년회’를 조직하는 데 참가했으며, 그 단체의 회장을 맡아 수년간 청년운동과 관계를 맺게 된다. 이후 1923년부터 1927년까지 4년 동안 평양 송인학교 교장으로 지내다가 다시 “생물계의 현상과 그 이법(理法)을 알아보기 위하여”³⁰⁾ 1927년 4월 도호쿠 제국대학 이학부 생물학과에 진학했는데, 그의 나이 마흔 살이었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학교 교장직을 그만두고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데서 그의 학문 탐구에 대한 열망을 엿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현실적인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평양의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인 송실전문학교에서 이학과 설립 인가를 추진 중이었다. 송실전문학교 교장은 송덕학교 교장을 겸임하고 있던 배어드였다. 문학과는 1925년에 조선총독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지만 이학과는 설비와 교수진의 부족으로 반려된 상태였다. 1926년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 과학관을 건립하고, 미인가 상태로나마 이학과 학생 모집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수진은 부족했고,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두현은 생물학 전공의 유학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29)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권: 3·1운동 1』, 삼일독립선언관련자 심문조서(경성지방법원). 또한 「대정 8년 내지 동10년 조선소요사건 관계 서류(공7책 기5) 비밀결사 대한국민회 급 대한독립청년단 검거에 관한 건」에는 정두현이 대한독립청년단 내무부장으로 올라 있다.

30) 정두현, 「학교선택체험담」, 『동광』 18, 1931년 2월, 79쪽.

도호쿠제대에는 1924년 경성고등공업학교를 졸업한 최삼열(화학)을 비롯하여 많은 조선인 유학생들이 이학 및 공학 분야 전공으로 진학하고 있었다. 1927년에는 정두현을 비롯하여 최종환(수학), 이구화(화학), 김호직(생물학), 박동길(암석광물광상학) 등 5명의 조선인이 입학했다. 이들은 선다이(仙臺)유학생회를 조직했고, 정두현은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정두현은 도쿄제대 농학실과 졸업 후에 연구실에서 연구한 적이 있는 동물학을 전공하여 1930년에 졸업했다. 생물학교실에 남아 1년간 연구 경험을 쌓은 정두현은 1931년 4월에 귀국했다. 당시 『동아일보』는 그의 졸업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거금 15년 전(1916)에 동경제대(농업실과)를 필업하고 향리에 귀(歸)하여 평양 숭인학교장으로 재직하여 극도의 경영난에 신음하는 동교의 운명과 공히 악전고투하기 수년, 교육계에 헌신하던 농학사 정두현 씨는 우호로 노부(老父)를 모시고 알에로 손자를 거늘인 40 고개를 넘은 중년으로서 빈약한 조선 학계, 특히 생물학계에 학구(學究)가 적응을 걱정하여야 이미 제대의 농과를 맞친 몸으로 다시금 선대(仙臺) 제국대학 생물학과에 학적을 부치고 형설의 학구생활 3년에 45세의 학생으로 이학사의 학위를 얻고 최근에 금의(錦衣)로써 환향한 것은 신추(新秋)를 맞는 평양으로서 또한 깃겨운 일의 하나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마음은 아즉 젊은 학생이리라. 마흔의 얼굴은 3년 전에 비기어 좀더 노성(老城)하는가 쉽다. 오히려 씨의 손에서 서책이 멀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머리에 연구가 거둬되니 불원하여 우리는 씨의 새로운 발표를 볼 날이 오려니와 압력으로 다시 교육계에 공헌하리라 하니 되마른 우리 교육계에 새로운 활천(活泉)을 얻은 감을 자아낸다.³¹⁾

정두현에 대한 기대가 잘 드러나 있는 기사이다. 이화여자전문학교에서는 이처럼 명망이 높아가던 정두현을 교수로 초빙하려 했지만, 신흥우가 “여교사가 가르쳐야 한다고 제안하여 아주 교묘하게 이 계획을 취소시켰다.”³²⁾

31) 「노학사의 환향」, 『동아일보』 1930. 9. 28.

32) 『윤치호 일기』(1931년 4월 19일자).

서북 출신을 차별했던 기호와 주류 세력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조선 왕조 시대의 서북 차별의식은 식민지 사회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기호 지역 주류 엘리트들은 서북 출신을 극도로 혐오했다. 일례로 신흥우나 유억겸 등 기호와 리더들은 이광수의 이화여자전문학교 강연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미국인 교장에게 그의 이혼 경력을 험담하여 강연을 취소시킴으로써 그를 모욕하기도 했다.

이화여전 임용이 좌절된 뒤 정두현은 숭실전문학교의 교수로 임용되었다. 1931년 숭실전문은 이학과 대신에 농학과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교수를 충원했다. 이 시기 정두현은 평양지역 사회를 배경으로 다양한 활동을 했다. 그는 1931년 설립된 인정도서관의 초대 관장직도 맡았다. 인정도서관의 설립자 김인정은 기생으로 일하며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 평양의 저명 인사였던 조만식에게 사회 사업 방안을 상의하자 그가 도서관 건립을 제안했다. 이에 김인정은 자신의 재산 절반에 가까운 10만원을 기부하여 5,000여 권의 책을 소장한 연건평 215평의 2층 도서관을 지었다. 당시 10만원은 경성에 집을 10채 정도 살 수 있는 거액이었다. 일반열람실, 신문열람실, 부인열람실, 아동열람실, 특별열람실과 연구실을 갖춘 인정도서관은 조선인이 세워 운영한 도서관 중에 가장 규모가 컸다.³³⁾

정두현은 남문교회 장로를 지낸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며 기독교면려청년 대회에서 강연을 했고,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해외학우협회 회장과 해외유학생친목회 집행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일본 경찰의 기록에 따르면, “1934년 3월 15일자 생활 개선 본위 잡지 《신흥생활》 창간호를 불허”³⁴⁾ 했는데, 그 잡지의 발행인도 정두현이었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을 하던 정두현은 다시 일본 파시즘의 확산과 더불어 어두운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33) 백창민·이혜숙, 「평양 인정도서관장 정두현①/②」, 『오마이뉴스』, 2021년 5월 29일(최종 업데이트).

34) 「불허가 출판물 목록(不許可出版物目錄)」(3월분), 『조선출판경찰월보(朝鮮出版警察月報)』 제67호.

3) 삼숭(三崇)의 폐교와 대만으로의 세 번째 유학

평양에 있는 미국 북장로회 소속의 대표적 학교였던 송실중학, 송의여학교, 송실전문은 이른바 ‘삼숭(三崇)’으로 불렸다. 이 삼숭의 교장들은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모두 파면당했다. 이에 따라 1936년 학교 측은 후임자를 물색했고, 송실중학 교장으로 정두현이 임명되었다. 송실중학은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던 학교로 학생 규모가 가장 큰 기독교계 학교의 하나였다. 미국 북장로회 조선선교부는 학생들과 평양지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 문제에 대응하여 폐교라는 강경한 결정을 내렸다. 정두현을 비롯한 평양 기독교계 지도자들은 인계위원회를 조직해 삼숭의 존속을 위한 운동을 벌였지만 학교를 지키지는 못했다.

1938년 학교가 폐교되자, 정두현은 다시 세 번째 유학길에 나선다. 1938년 4월, 51세의 정두현은 타이베이의 다이호쿠제국대학 의학부에 입학했다. 만학의 결심의 이유에 대해서 정두현은 “인간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와 인민 보건에 다소간 공헌하여보겠다는 의도”였다고 자서전에 적고 있다. 이 대학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당시 제국 일본의 의학계 대학 중 입학이 상대적으로 수월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두현이 진학할 당시 37명의 의학부 지원자 중에서 탈락자는 한 명뿐이었다. 설립 당시 다이호쿠대학은 문정학부와 이농학부로 구성되어 있었고 1936년 의학부가 증설되었다. 의학부는 일제의 남방 진출에 유용한 열대의학을 표방했다. 정두현은 의학부 3회생으로 입학하였는데, 의학부의 조선인 졸업자는 그가 유일하다.³⁵⁾ 전시상황으로 교육과정이 6개월 단축되면서 정두현은 1941년 12월에 졸업했다. 의학부를 졸업한 정두현은 산과학부인과학교실에서 2개월 가량 근무하다가 조선

35) 다이호쿠제국대학 학생일람 및 졸업생 명부를 통해 확인되는 조선인유학생은 정두현을 포함해 총 5명이다. 문정학부의 竹圃震澤(철학과, 1942년 10월 입학, 졸업 미확인), 마형욱(馬川行弘, 이농학부 농예화학과, 1940년 4월 입학, 1942년 9월 졸업), 吉川富雄(농학부 농예학, 1943년 9월 입학, 졸업 미확인), 김봉균(金田吉永, 이학부 지질학과, 1942년 10월 입학, 졸업 미확인)이 있었다. 이상은 永島廣紀, 「帝國の大學に學んだ朝鮮人學生」, 『韓國研究センター年報』22, 九州大學韓國研究センター, 2022, 3, 120쪽 참조.

으로 돌아왔다. 1942년 4월부터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서 본격적으로 연구 경험을 쌓았다. 그는 내과학교실에서 3년여, 그리고 내과학교실 생활과 겸하여 생리학교실에서도 2년여 간 연구했다. 생리학 분야에서 신경세포를 연구하며 논문을 썼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정두현은 1945년 7월에 평양으로 돌아가 머물던 중 해방을 맞았다.

4) 평양의학전문학교-김일성의학대학-평양의학대학 학장

정두현은 1938년부터 해방 때까지 의학 연구에 몰두했기에 식민권력과 타협 없이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다. 평양서 나고 자란 유지이자 세 곳의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승덕·승인·승실학교장과 승실전문 교수를 지낸 정두현은 단연 돋보일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그는 3·1운동 때 옥고를 치른 투쟁의 경력도 가지고 있었다. 해방의 혼란 속에 주도권 다툼을 벌일 뿐 학교를 이끌어갈 책임자가 마땅치 않았던 평양의학전문학교 교수들과 동문들은 논의 끝에 정두현을 교장으로 초빙하기로 결정했다. 1945년 10월 정두현은 평양의학전문학교 교장으로 초빙되었다.

남한에서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국대안)이 제기되던 시기에 북한에서도 종합대학 설립안(총대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총대안은 평양의전과 평양공전을 대학으로 승격시킨 다음 이것을 모체로 종합대학을 세우는 안이었다. 1946년 5월 종합대학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 장종식(교육국장)을 중심으로 정두현을 비롯한 학계와 교육계의 저명인사 아홉 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당시 최고 교육기관의 교장이었던 정두현은 김일성종합대학 설립을 주도하고, 초대 의학부장이 된다.

의학부는 학부장 정두현을 위시하여 28명의 교수진을 확보했다. 그 다수는 평양의전 교수들이었고 다른 일부는 새로 충원된 사람들이었다. 부학부장 겸 병원장은 평양 출신으로 해방 직후 서울에서 활동하다 월북한 도쿄제대 출신 최응석이 임명되었다. 이후 상당수의 의학부 교수들이 월남하고 또 일부가 월북하여 교수진의 교체가 잦았다. 1947년의 의학부 상황을 보면,

교실별 책임자로 내과학 최응석(도쿄제대), 외과학 장기려(나고야 제대), 안·이비인후과학 이호림(오사카제대), 피부비뇨과학 이성숙(교토제대), 세균학 안진영(나가사키 의대), 위생학 배영기(규슈제대) 등이 임명되었다.³⁶⁾ 1948년 7월 7일에는 “북조선 고등교육사업 개선에 관한 결정”(제157호)을 채택하고 고등교육기관을 전면적으로 개편·강화하였다. 이 안에 따라 1948년 9월에는 과학기술계 학부를 독립적인 대학으로 확장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공학부, 의학부, 농학부가 각각 평양공업대학, 평양의학대학, 평양농업대학(이후 원산농업대학으로 개칭) 분리된 것이다. 의학, 약학, 위생학의 세 학과로 구성된 평양의학대학이 1948년 9월 28일 창립되었고 정두현은 평양의학대학 학장을 맡으며 생물학을 담당했다.

이외에도 정두현은 제1차 전국과학대회 준비위원, 북조선노동당 중앙위원이 되었으며, 1947년에는 유엔의 한국임시위원단 조직에 대해 31명으로 구성된 임시헌법제정위원회에 김일성, 김두봉 등과 함께 선임되었다. 북한 정권 수립을 전후한 시기에 정두현의 정치적 입지는 탄탄한 편이었다. 1946년 8월 북조선노동당 창당 당시 정두현은 31명의 주석단 중 23번째에 호명되었고, 이때 선출된 43명의 중앙위원 중 31위로 선출되었다. 1948년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린 북조선노동당 제2차 당대회에서도 정두현은 59명의 대회 집행부 중 55위로 이름을 올렸다. 이 당대회를 마치면서 북조선노동당은 중앙위원 67명을 선출했는데, 정두현의 서열은 41위였다.³⁷⁾ 그는 고등교육기관에 적을 둔 사람 중 유일하게 당 중앙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정두현은 북한의 공적 영역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의 학부장, 평양의학대학 학장, 노동당 중앙위원, 임시헌법제정위원 등을 역임하며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다.

36) 박형우, 「해방 직후 북한의 의학교육에 관한 연구: 평양의학대학을 중심으로」, 『남북한 보건의료』, 2002.

37) 백창민·이혜숙, 앞의 기사 참조.

5) 북한의 ‘미추린주의’ 수입과 정두현의 말년

의학계에서 그리고 정치의 영역에서 위상이 높았던 정두현의 행적은 1951년부터는 더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그의 신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상세히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그의 말년을 추론할만한 회고가 존재한다. 평양의학대학 교수로 있다가 월남한 배만규가 『평의』 12집(1981)에 쓴 회고에 따르면, 정두현은 소련에서 열풍처럼 유행된, 고유의 유전자를 부정하고 환경적 변이를 강조한 미추린과 리센코의 학설을 반대하다가 학장에서 물러났고, 교직은 유지한 채 생물학만을 담당했다고 한다.³⁸⁾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독일의 아우구스트 바이스만(August Weismann), 오스트리아의 그레고어 요한 멘델(Gregor Johan Mendel), 미국의 토마스 헌트 모건(Thomas Hunt Morgan)은 각각 ‘생식질 연속설’, ‘분리 전달의 법칙’, ‘유전자 염색체설’ 연구를 기초로 생물의 유전에 관한 기본 원리들을 밝혀내었다. 이들의 연구 결과들은 특정 유전자가 일정하게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전달된다는 고전 유전학의 핵심 기초가 되었고 이를 통해 유전학이 확립되었다. 유전학의 기초를 세우는데 공헌한 수많은 유전학자들 중에서도 멘델은 ‘유전학의 아버지’로 추앙을 받았다. 이들 서구의 고전적 유전학은 라마르크 이래의 획득 형질의 유전에 대해 부정했다.

이에 반해 소련에서는 획득형질 유전의 중요성이 아주 이른 시기부터 확립되어 있었다. 1930년대 소련의 생물학계는 서구에서 확립된 고전 유전학을 관념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이며 형식주의적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고전 유전학자들의 이름을 따서 ‘멘델-모건주의’라고 호명하였다. 환경절대주의와 획득형질의 유전을 신봉한 소련의 리센코(Trofim Denisovich Lysenko)와 그의 추종자들은 서구의 고전 유전학을 ‘부르주아 유전학’이라 규정하고 부르주아 과학과 프롤레타리아 과학의 대립 구도를 구축하였다.

38) 배만규, 「미추린 학설과 정 학장」, 『평의』 12, 1981, 16~26쪽.

이때 리센코가 소환한 것이 바로 과수원에 전문가 미추린(Ivan Vladimirovich Michurin)이었다. 미추린은 식물의 품종 개량에 일생을 헌신했던 육종전문가였다. 자신이 거주했던 중앙 러시아 지방에서 재배 가능한 과수의 품종 개량을 위해 남부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다른 지역의 과수를 이식하여 적응시키는 방법, 여러 개체 중에서 좋은 품종을 선발하는 방법, 서로 다른 개체 혹은 이종교배 방법 등을 사용하여 품종 개량에 노력하였다. 환경을 중시하는 이러한 미추린의 품종 개량에 대한 연구는 서구의 유전적 원리에 기초한 교배 방법과는 차이가 있었다.

리센코와 그의 추종자들은 부르주아 유전학으로 규정된 멘델-모건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한 미추린주의를 만들었다. 미추린주의자들은 미추린의 품종 개량에 관한 기본적인 발상을 자연 개조 및 인간 개조와 연결하여 사회주의 세계에서 사회개혁의 이론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들에 의해 미추린은 위대한 ‘자연 개조자’, ‘유물론적 생물학의 태두’ 등으로 추앙된다.³⁹⁾

리센코를 중심으로 한 미추린주의자들은 1930년대 소련 레닌농학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활발한 유물론적 생물학의 확장을 시도했다. 레닌 농학아카데미의 초대 회장 바빌로프는 서구의 고전 유전학을 지지하는 식물육종 유전학자였다. 그는 멘델유전학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리센코는 1935년 레닌농학아카데미 정회원이 되었고, 1938년 회장직에 취임한 이후 미추린주의를 강화하고 멘델-모건주의를 척결하는 사업을 선도했다. 그는 일종의 ‘유전학의 숙청’을 단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바빌로프는 소련 농업을 고의로 파괴하였다는 죄목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옥사했다. 리센코는 스탈린의 지원을 받았으며 당 중앙위원회는 ‘미추린 생물학만을 유일한 과학적 원리’로 공인함으로써 미추린주의는 사회주의 정통 프롤레타리아 유전학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정

39) 리센코의 미추린주의 주조와 프롤레타리아 과학의 주창은 과학계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간섭과 과학 내부의 이데올로기적 감염의 문제를 보여준다. 이에 대해서는 로렌 그레이엄, 『리센코의 망령: 소비에트 유전학의 굴곡진 역사』, 이종식 옮김, 동아시아, 2021을 참조.

치가 과학을 억압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소련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무렵, 사회주의 중국과 북한에도 미추린주의가 전파된다.⁴⁰⁾ 북한에서는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 초반 사이에 미추린주의가 적극적으로 수입되었고, 1950년대 중후반에도 여전히 북한의 생물학계를 선도하는 과학적 이데올로기로 작동하였다. 1948년에서 1950년 상반기까지 미추린주의의 보급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북한 정부는 북조선농림수산기술총련맹과 농림성 산하 농림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미추린주의에 관한 소련의 문헌들을 대폭 번역하여 출판 보급하였다. 미추린 학설은 해방 후 북한의 선진 과학에 대한 열망과 신생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상 무장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주었다. 당시 대학에서도 교원들이 해당 과목의 강의안을 작성함에 있어 반드시 소련의 교과서와 참고서 및 기타 과학 서적들을 참고하도록 강제되었다. 『김일성대학 10년사』에서는 1949년 무렵에 “1개월에 2차씩 전 대학적으로 되는 쏘베트 과학의 성과에 대한 연구 발표회가 개최”되었으며, 그 “실례로 생물학 분야에서 미추린 학설을 연구하고 와이스만-멘델-모르간주의 생물학 이론의 비과학성을 비판하였다”⁴¹⁾고 기록하고 있다.

배만규의 회고가 알려주듯이, 이런 상황에서 정두현은 멘델·모건의 유전학을 올바른 과학으로 제시하며 미추린 학설에 맞섰던 듯하다. 정두현은 도쿄제대와 도호쿠제대, 다이호쿠제대에서 농학, 생물학, 의학을 전공한 과학자였다. 정두현은 일본 유학을 통해서 서구의 고전유전학을 수학하였고 국제적 유전학의 흐름을 호흡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신의 전문성에 토대하여 정두현은 미추린-리센코 학설에 분연히 반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1949년 10월 무렵 유전학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검열이 있었다. 그 결과 유전학 강의를 폐지되었고, 교재와 강의록 및 연구물이 압수되었으며, 관련자들이 주요자리에서 축출되었다. 누에 유전학자 계응상도 대학과 연

40) 중국 건국 초기의 미추린 학설의 수용과 갈등 양상에 대해서는 유연실, 「중화인민공화국 건설 초기 과학계의 사상투쟁-樂天宇의 미추린학설 수용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2022를 참조.

41) 『김일성대학10년사』, 46쪽.

구소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⁴²⁾ 이처럼 북한의 과학계가 미추린-리센코 학설에 의해 재편될 때 정두현이 옹호한 멘델·모건의 유전학을 “세계 조류에 역행하는 반동적 학문”이라며 비판한 사람은 정두현과 가까이 지냈던 도쿄제대 의학부 출신의 최응석이었다고 한다.

1952년 북한 과학의 최고 전문가들로 공인된 과학자들의 모임으로 과학원이 창립되었다. 의학 분야의 경우에는 최고의 권위자인 ‘원사’로 최명학이 선발되었고, ‘후보원사’로 최응석, 리호림, 도봉섭이 추대되었다. 해방 이후 북한 의학계의 최고 권위로 인정받았던 정두현은 과학원의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미추린-리센코 학설의 등장과 정두현의 몰락은 북한에서 제국의 학지가 소련의 사회주의 학술로 재편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윤일선과 경성대학 의학부-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 출생부터 교토제국대학 의학부 시절까지

윤일선(尹日善, 1896~1987)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자.⁴³⁾ 윤일선은 1896년 10월 윤치오(1869~1950)와 이숙경의 장남으로 출생했다. 윤치오의 사촌인 윤치오는 독일하여 후쿠자와 유키치가 세운 게이오기주쿠에서 수학하고 있던 중이었다. 도쿄에서 태어난 윤일선은 1903년 프랑스인 신부가 운영하는 교세이(曉星) 소학교에 입학하여 불어를 습득했다. 1906년 7월에 귀국한 윤일선은 충남 아산에서 조부모와 생활하며 우리말을 공부했

42) 북한에서 미추린주의의 수입의 상세한 내력과 계응상의 유전학의 공존에 관해서는 양재섭, 「북한 생물학의 과학적 이데올로기 수입사:미추린주의와 계응상유전학의 공존」,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을 참조할 것.

43) 윤일선의 삶의 이력에 대해서는 정종현, 『제국대학의 조센징』, 휴머니스트, 2019와 홍종욱, 「식민지기 윤일선의 일본 유학과 의학연구」, 『의사학』 27권 제2호, 2018과 여타 자료를 종합하여 재구성하였다.

으며⁴⁴⁾, 1906년 8월 서울로 올라와 저동에 거주하며 정동제일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1907년 1월에 모친이 사망한 뒤 아버지가 맞이한 새어머니 윤고려에게 영어를 배웠다. ⁴⁵⁾ 1907년에는 퇴계로 3가의 일본인 학교 히노데(日出) 소학교 4학년으로 진학했으며, 1910년 일본인 학교인 경성중학교에 입학하여 1915년에 졸업했다. 1915년 6월 도일하여 1년 재수 후 1916년 9월 제6고등학교 제3부에 입학한다. ⁴⁶⁾ 구제고등학교 편제에서 1부는 '법과대학 및 문과대학 지망자', 2부는 '의학부 약학과, 공과대학, 이과대학 및 농과대학 지망자', 3부는 '의과대학'의 지망자들로 나뉘어 있었다.

윤일선은 그 자신이 약질인데다 모친의 이른 죽음이 자신이 의학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였으며, 물리화학 등 자연과학 공부가 의학으로 이어졌다고 회고하고 있다. 당시 제6고등학교의 조선인은 2년 선배인 1부의 3학년 김준연 뿐이었으며 윤일선과 김준연은 1년간 함께 하숙했다. 6고 시절 근처에 있던 오카야마 의학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이갑수와도 교류했다. 어린 시절 불어와 영어 등을 배웠던 윤일선은 외국어 교육이 중시되는 구제고등학교에서 독일어 교육을 처음 받았고, 괴테와 쉴러 등의 독일 문학과 일본 문학을 탐독하며 인문적 교양을 형성했다.

6고를 졸업한 윤일선은 1919년 9월 교토제국대학 의학부에 입학하여 1923년 6월에 졸업했다. 1학년 입학 당시 신입생 78명 중에 유일한 조선인이었다. 교토제국대학은 도쿄제국대학보다 학교 분위기가 매우 자유로워

44) 윤일선은 “처음에는 우리나라 말도 잘할 줄 몰라 많은 애로를 겪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元老科學技術者の證言 <1> 尹日善 博士 篇 <上>」, 『과학과 기술』 12-1, 1979, 55~57쪽.

45) 「나의學問遍歴 <16> 尹日善 박사 ‘前 서울대 總長’ ②」, 『每日經濟新聞』, 1987.2.24.

46) 당시 일본 제국의 교육과정은 소학교 6년, 중학교 5년, 고등학교 3년, 대학 3년(의대 4년)의 '6-5-3-3'제였다. 고등학교는 대학의 예과 기능을 했다. 고등학교 졸업생과 대학 입학생의 정원을 비슷하게 맞추어놓았기 때문에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등 핵심 엘리트 산출의 제국대학 학과가 아니라면, 고등학교에 입학만 하면 어지간한 제국대학의 학과를 무시험으로 진학할 수 있었다. 폐전 이전까지 일본의 (구제)고등학교는 총 38개교가 있었으며, 관립학교로는 숫자를 붙여 표기한 넘버스쿨(1~8고)과 지명으로 표기한 지명스쿨이 있었고 이외에 공립 3개 고교, 사립 4개 고교가 있었다. 일본의 구제고등학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秦郁彦, 『舊制高校物語』, 文藝新書 355, 文藝春秋, 1982와 정중현, 『제국대학의 조센징』, 휴머니스트, 2019, 65~72쪽 참조할 것.

다른 학부의 강의나 청강을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었다. 그래서 기독교청년회 기숙사에 3년간 기거하며 동숙하던 친구와 종교, 철학, 미술 강좌를 듣고 교양서적을 읽으며 의학을 병행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윤일선은 기숙사를 나와 김연수, 이관구, 최현배 등과 함께 1년간 자취 생활을 했다. 이즈음 윤일선은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영향 속에서 사상적 고뇌에 빠졌다. 가와카미 하지메를 비롯해 기독교 사회주의자로서 저명한 빈민운동가 가가와 도요히코(賀川豊彦), 불교계 수양 단체인 잇토엔(一燈園)을 이끈 니시다 덴코(西田天香) 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1920년대 청년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함께 자취하던 경제학부의 이관구와 함께 가와카미의 강의를 수강하고 니시다 덴코(西田天香)를 자주 심방했으며, 둘이 함께 무샤노코지 사네아쓰(武者小路實篤)가 규슈의 휴가(日向) 마을에 건설한 이상촌에도 방문했다. 일본을 찾은 인도 시인 타고르의 특강을 듣고 감동한 회고도 남아 있다. 당시 윤일선은 인생의 진리를 찾아 고뇌하고 이상주의에 몰두한 섬세한 정서의 청년이었다.

윤일선은 사상적 고뇌 속에서 세상을 위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는 의학부의 전공을 선택하면서는 “임상의학을 하느냐 기초의학을 하느냐”를 두고 고민했다. 이관구와 여러 고민을 놓고 토론을 하며 철학의 차원으로 변해 인생의 목적을 논하느라 밤을 새우기도 했다고 한다. 윤일선은 기초의학 중에서도 병리학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에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그의 생활에 깊게 관여한 의학부 병리학 교실 후지나미 아키라(藤浪鑑) 교수의 영향이 컸다. 사상적 고뇌 속에서 세상을 위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던 윤일선은 인생의 스승인 교토제대 후지나미 아키라 교수의 병리학교실에서 학문적 수련을 하게 된다. 후지나미는 ‘근대 병리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루돌프 칼 비르호의 제자로서 일본 병리학의 중심 인물이었다. 후지나미 교수는 “의학도는 임상가가 되어 질병을 고쳐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기초의학을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훌륭한 임상의를 길러내는 일이 인류에 보다 봉사하는 길이라고 역설”⁴⁷⁾했다. 후지나미 교수와의 인연으로 병리학을 전공하게 된 윤일선은 다음과 같은 회고를 남기고

있다.

교토제국대에는 병리학의 일본 대표적 학자 후지나미 교수가 있었는데 그는 나를 깊은 관심을 갖고 대해주었다. 한편 후지나미 교수는 매주 수요일 한 시간 동안 학생들과 같이 점심 식사를 했다. 기숙사 식당엔 의학부 학생뿐 아니라 경제, 법학, 이공학부 학생들까지 북적이는 속에서 식사를 하며 많은 학생들의 질문에 응해주는가 하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까지 해주곤 했다.

지금과는 달리 그때는 스스로 학생들 틈에 끼어서 점심을 들며 이야기해주는 교수는 후지나미 교수밖에 없어 학생들의 인기를 높이 샀으며 그 교수의 가르침을 받던 그때가 오래도록 내 기억에 남는다.

1923년 6월 교토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나는 후지나미 교수가 수업료를 주어 대학원 병리학 교실 부수, 지금의 조교로 들어가게 되었다. 요즘은 인턴까지 보수를 받고 그것도 모자라 처우 개선을 요구, 환자 곁을 떠나는 실력 행사까지 벌여 돈을 더 타내기도 하지만 그때는 처음부터 무보수였다. 월급을 받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공부만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생활비가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후지나미 교수를 찾아가 도움을 받기 일쑤였다.⁴⁸⁾

후지나미 교실에 간 윤일선의 첫 연구과제는 ‘임상진단과 병리해부학적 진단의 대비’였다. 후지나미 교수와 윤일선의 관계는 마치 부자 사이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후지나미 교수는 윤일선에게 인간적인 애정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원조도 주었다. 후지나미 교수는 윤일선의 등록금을 내주었고, 월 90엔의 장학금을 주선했으며, ‘제국학사원’의 연구비 3,000엔을 주선했다. 후지나미 교수의 학구 생활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윤일선의 주전공인 병리학, 그중에서도 암 연구는 바로 후지나미 교수의 발견과 학설에 힘입은 바 크다. 후지나미 교수는 1934년에 사망했다. 윤일선은 이후 후지나미

47) 「나의 학문편력(18) 윤일선 박사」, 『매일경제신문』, 1987년 3월 3일자.

48) 「원료과학기술자의 증언1—윤일선 박사 편(상)」, 『과학과 기술』 12(1), 1979, 56쪽.

교수에게 받았던 후의를 세브란스의전 및 한국의 의학교 제자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았다.

2) 경성제대 병리학교실과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시절

후지나미 교수는 자신의 도쿄제대 졸업 동기인 시가 기요시 경성제대 의학부장에게 편지를 보내 윤일선의 병리학 교실 임용을 주선했다. 경성제대 병리학교실에서 윤일선은 과민증(‘아나필락시스’)과 내분비, 특히 호르몬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연구에 주력하여 『일본병리학회지』, 『일본미생물학병리학잡지』, The China Medical Journal 등의 국제학술지에 연구논문을 잇달아 발표했다. 드디어 윤일선은 1928년 3월 30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병리학교실 제2강좌 조교수로 취임했다. 윤일선은 경성제국대학에 교수로 임용된 최초의 조선인이었다.⁴⁹⁾ 조교수로 있으면서 윤일선은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Anaphylaxis and Hormones: Especially, researches on Anaphylaxis and Testicular Hormones”를 제출하여 1929년 1월 교토제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인으로는 여섯 번째 의학박사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강의에서 배제되면서 임용 1년 뒤인 1929년 4월 윤일선은 경성제대에서 밀려난다. 윤일선이 경성제대를 그만두는 과정에 대해 경성제대 의학부 1회 졸업생인 김성진이 남긴 회고가 남아 있다. 1927년 윤일선이 조수로 있을 때 ‘병리실습강의’를 들었던 김성진에 따르면, 1928년 조교수로 승진했으나 ‘본(本)강의’가 허용되지 않아 “울분과

49) 동경제대 문학부 출신인 윤태동이 예과 교수로 임용된 바 있지만, 학부 교수로는 윤일선이 경성제국대학에 임용된 최초의 조선인이었다. 이후 일본 패전 직전 이공학부 지질학과에 김종원이 조교수로 임용될 때까지 경성제대에 조선인 교수 부임은 없었다. 다만 여기서 윤일선의 조교수 부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해가 더 필요하다. 당시 일본의 제국대학에서 강좌를 담임하는 교수와 그렇지 않은 조교수 사이에는 현격한 지위의 차이가 있었다. 윤일선은 강좌를 가진 교수가 아니었으며 조교수의 교수 승진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에 비해 이후 지질학과에 임용된 김종원은 조교수로 임용되었지만 강좌 교수로 승진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김종원이 경성제대에서 조선인이 교수가 된 첫 사례이다.

비육지탄을 금치 못하면서 묵묵히 연찬을 계속”했지만 끝내 “경원추방 당하다시피” 경성제대를 떠났다고 한다.⁵⁰⁾

1929년 경성제대 사직 후 세브란스 의전으로 이직한 윤일선은 세브란스 의전 병리학교실 주임교수로 기초의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식민지의 사립 전문학교의 위상이란 무엇이었을까? 또 경성제대에서 밀려나 사립 세브란스의학전문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식민지 조선에서는 (경성)제국대학-관립전문학교-사립전문학교-전문 상당의 각종 학교가 위계적 질서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서열은 총독부의 지침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가까웠다. 총독부는 관립전문학교 졸업생들에게 많은 특혜를 주었으며, 교육 자원도 이곳에 많이 배부했다. 고등 교육 기관이 부족했던 식민지의 현실에서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고, 본국에서 소수자로 차별을 받은 유학생들은 피식민지인으로서의 자각과 함께 반일의식을 키우게 된다. 조선인 유학생들의 반일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조선총독부는 조선인 유학의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식민지 내에 관립 전문학교를 설립하고 우대했다. 관립전문학교 졸업자들에게는 다양한 특권이 주어졌다. 관립학교 졸업장은 전문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패스포트’였다. 의학부의 경우 1917년 경성의학전문학교 또는 조선총독이 지정한 의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조선총독부 의사면허가 주어졌다. 이때까지는 조선 내에서만 효력이 있었다. 1918년에는 경성의전 내에 일본인만으로 특별의학과를 설립했고, 일본인 졸업자에게는 내무성 의사면허를 부여했다. 이 면허는 일본 내지에서도 의사개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었다. 이어서 1923년에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에게도 적용하여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자 모두에게 내무성 의사면허를 부여했다. 시설과 설비가 더 좋았지만 사립이었던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는 1923년 2월 24일에 조선총독부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갖는 의학교 졸업자 지정을 받았고, 1934년 4월 12일에 이르러야 내무성 의사면허를 부여받았다. 이처럼 조선총독부는 관립과 사립에 대해서

50) 김성진, 「한국의 석학② 윤일선 박사론」, 『思潮』 1-2, 1958. 7.

차별적 정책을 시행했다. 당시에는 대학 서열이 임금 구조에도 반영되어 있었다.

이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대학 서열과는 달리 실제로 기독교계 사립 전문학교는 관립 전문학교에 비해 결코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았다. 재학생 1인당 연간 경비나 총 자산 등에서는 더욱 뛰어난 점도 있었다. 1916년-1942년의 관·공·사립전문학교 재학생 1인당 연간 경비를 정리한 한 연구에 따르면, 의학계의 경우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는 학생 1인당 연간 경비가 조선총독부 의사면허라는 자격을 얻기 전인 1923년까지 경성의학전문학교에 비해 약 3~6배 높고, 이후 내무성 의사면허라는 자격을 얻기 이전인 1934년까지도 경성의학전문학교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았다.⁵¹⁾

식민지 학벌 구조의 최정점에 있던 경성제대에 임용되었지만 추방되다시피한 윤일선은 관립전문에 비해 제도적 차별을 받았던 세브란스의학전문에 자리잡은 뒤 연구와 후진 양성에 심기일전하게 된다. 그는 우선 중앙도서관, 연구실 제도 등을 확립했고 자신의 제자들을 열성적으로 지도한다. 식민지 시기에 그의 지도를 받은 제자 중 이영춘이 1935년 6월 교토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음으로써 최초의 조선인 교수의 지도를 받은 의학박사가 탄생하게 된다.⁵²⁾ 이후 윤일선의 지도를 받은 세브란스의 전 출신으로 교토제대 의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조선인 의학박사는 총 29명에 다다른다.

홍종욱은 교토제국대학 의학부를 정점으로 하는 제국 학제 속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윤일선이 식민지대학인 경성제대에서 ‘제국 아카데미즘’을 수행하다가 피식민자라는 정체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떠난 뒤 세브란스의전에서는 ‘제국 아카데미즘’을 이식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정리한 바 있다. 홍종욱은 이러한 윤일선의 활동 궤적에서 “피식민 주체로서의 한계뿐만 아니라 제국의 주체(agent)로서의 능동성을 엿”⁵³⁾보고 있다. 어쩌면 그것은 윤일선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최대의 분투였을지

51) 김자중, 『한국대학의 뿌리, 전문학교』, 지식의 날개, 2022, 169쪽.

52) 「철두철미, 우리힘으로 길러낸 최초의 박사」, 『동아일보』 1935년 6월 19일자.

53) 홍종욱, 앞의 논문, 209쪽.

도 모른다. 윤일선은 세브란스의학전문 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인)의 의학적 재생산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1930년 2월 이비인후과학계의 원로 박계양, 경성제대 의학부 생리학 강사 이갑수, 경성의학전문학교 외과 주임교수 백인제 등과 함께 조선의사협회 창립을 주도했다. 협회의 기관지 『조선의보』의 편집책임을 맡아 한국인 의학자들의 학술논문을 수록하고 의학자들의 근황을 소개하는 등 식민지 의학 발전에 기여했다.

3) 경성대학 의학부장에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장으로

윤일선은 해방 직후 조직된 조선학술원의 의학부장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9월에는 김성수, 백낙준, 최규동, 조동식, 김활란 등과 함께 미군정청 문교부 학무위원이 되었다. 당시 학무위원회는 교육법 제정권과 전국 학교 교장, 학장들의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1945년 9월 20일 학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윤일선은 경성대학 의학부장이 되어 대학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다.

1946년 4월 미군정 학무국 관리들은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전을 통합시키고자 했다. 이 통합안이 알려지자마자 관련된 두 학교 학생과 교수, 직원들이 반대에 나섰다. 통합 반대의 중요한 근거는 대학과 전문학교 간의 수평적 통합에 따르는 불만이었다. 윤일선 경성대학 의학부장은 ‘최고 엘리트를 양성하는 대학의 의학부를 전문학교와 통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심호섭 경성의학전문학교교장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경의전을 다른 학교와 통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⁵⁴⁾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대학 의학부와 경의전을 통합하는 안은 일시적으로 유예되었다. 학무국 관리가 추진한 의학교육 개혁 추진은 경성대학을 기반으로 ‘국립대학교를 새로 설립하려는 구상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미리 가능하기 위한 예비작업’⁵⁵⁾이었다. 학교와 교수 간의 합의를 통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54) 오천석, 『의료운 성주』, 광명출판사, 1975, 101쪽.

55) 김기석, 앞의 책, 26쪽.

“비록 비민주적 수단일지라도” 학무국 주도로 ‘국대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⁵⁶⁾ 의학부 통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7월, 윤일선은 “의학부 합동문제는 아직 정식으로 문교부로부터 통지를 접수치 못하였다. 의학부로서는 이미 교수단 명의로 문교부에 반대 진정을 하여 왔었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조사연구 중이라고 할 뿐이었다. 합동 결정 운운은 6일 문교부로부터 학생 측에 결정 통지가 왔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것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므로 지금에서는 무어라 말할 수 없다”⁵⁷⁾고 신중한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와의 합동 문제가 왜 제기되었고 어떤 맥락에서 반대가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자. 『동아일보』의 당시 사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참고할만한 여러 진술을 담고 있다.⁵⁸⁾ 사설에서는 “해방 후의 조선교육이 실용방면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아니될 이 때에 있어서 이 방면의 교육기관이 중등전문의 각계단을 통하여 혹은 자진, 혹은 문교부의 방침에 의하여, 점차 축소되는 경향에 있음은 실로 유감된 현상”이라고 진단하며 두 학교의 통합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전제하며 사설이 소개하는 경의전을 대학 의학부에 합동시키려는 문교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현재 경의전은 그 시비(施備)에 비하여 학생수가 많”고 “대학의 설비는 학생수에 비하여 병원 학교에 여유가 있”으므로 “한 학교로 합동하면서도 분리된 것보다 더 우수한 의사를 다수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문교 당국은 합동함으로써 양과 질에 있어서 소기의 능률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설은 문교부가 합동을 추진하는 근본이유로 ‘개정문제’를 지목하고 있다. “경의전은 교사가 소실(燒失)되고 병원이 협착한 불운에 처하여 있”으므로 “그 필요한 시설을 문교당국에 요구하였던 바 여기에서 적지 않은 재정을 염출치 않을 수 없는 문교부의 고충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

56) 오천석, 앞의 책, 101쪽.

57) 「말못하겠다 의학부장 윤일선씨 답」, 『중외신보』, 1946년 7월 8일자.

58) 「경의전합동문제(사설)」, 『동아일보』, 1946년 7월 13일자.

한 『동아일보』의 당시 사설은 경의전과 대학 의학부의 합동에 대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양교의 합동은 말뜻 그대로의 ‘합동’이 아니라 대학 의학부를 중심에 두고 경의전을 해소하여 합치는 것, 즉 경의전의 폐지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며, 경의전 동문과 교직원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문교부의 합동 추진에 대학 의학부 학생들과 경의전의 교직원 양쪽 모두 반대 성명을 냈지만, 그들의 성명의 내용은 각기 달랐다. 앞서 살펴봤듯이, 대학 의학부 학생들은 대학과 전문학교가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합동을 반대했고, 경의전은 자기 기관의 전통을 강조하고 해방 조선의 의사 수급을 위해 기존 복수의 의학 교육 기관의 존속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문교부는 대학 의학부의 설비와 병원 등이 학생수에 비해 여유롭기에 그것이 부족한 경의전과 합쳤을 때 효과적인 의학 교육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사설은 그것이 소실된 경의전의 건물이나 ‘협착한 병원’ 시설 등에 대한 투자 여력이 없던 문교부가 두 기관을 병합하여 해결하려 한 속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해방 직후 윤일선은 경성대학 의학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양교의 통합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고 엘리트를 양성하는 대학의 의학부를 전문학교와 통합할 수 없다는 엘리트주의의 태도를 보였다. 물론 이것은 제국대학을 정점에 둔 식민지 고등교육 체계의 위계적 질서를 내면화한 것이라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여기서 고려할 것은 윤일선이 재직했던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의 존재이다. 식민지 시절 사립이었던 세브란스의학전문은 설비와 자원 등에서 관립인 경의전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더 나은 측면도 있었지만 총독부의 인위적인 차별 정책 속에서 그에 값하는 위상을 인정받지 못했다. 경의전에 대한 차별 의식은 제국대학 의학부의 특권적 엘리트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식민지 시기의 이러한 경험과도 관련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통합에 반대하던 윤일선은 국대안이 시행되고 대학이 어수선한 가운데에도 수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1946년 10월 22일에는 정식으로 서울대 의과대학 병리학 교수 겸 초대 대학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초대 의과대학 학장

에는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장이었던 심호섭이 임명되었다. 아마도 대학의 학부와의 통합에 대한 경성의학전문학교의 반발을 고려한 인선이었다고 추정된다. 심호섭은 1947년 5월 10일 새롭게 조직된 '조선의학협회'의 회장을, 윤일선은 학술위원장을 맡았으며 다시 심호섭을 이어 윤일선이 2대와 3대 회장을 연이어 역임했다. 조선의학협회는 1948년 8월 정부 수립 후 '대한의학협회'로 이름을 바꿨다. 1949년 7월 회장 윤일선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암학회에 참석하는 길에 미국에 들러 세계의학협회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윤일선은 1955년 6월에서 1956년 5월까지 다시 한 번 제7대 대한의학협회 회장을 맡았다.⁵⁹⁾

윤일선은 해방 이후 한국의 의학계에서 확고부동한 중심적 위치에서 활동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1955년 4월 부총장을 맡은데 이어, 처음으로 치러진 교수에 의한 총장 직선을 통하여 1956년 7월 제6대 총장에 취임했다. 그가 부총장,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시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한국의 의학계는 미국식 의학 교육의 세례를 받아 새롭게 변화하게 된다.

4) 윤일선과 '미네소타 프로젝트'

미네소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대는 자신의 기반이었던 일본식 교육에서 벗어나 미국을 지향하는 근대적 교육기관으로 재편된다.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1954년 미국 대외활동본부(FOA, 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와 미네소타대학교의 계약에 따라 1962년까지 이루어진 서울대학교에 대한 교육원조 사업을 통칭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3개월 임시 계약 기간에 미네소타대학교의 보건대학원장이 서울대학교에 파견되어 사전 조사를 시행한 뒤, 1954년 9월 28일 미국 대외활동본부와 미네소타대학교가 재건 협약에 서명했다. 프로젝트 비용은 미국 연방정부

59) 대한의학협회70년사편찬위원회, 『대한의학협회70년사』, 대한의학협회, 1979; 대한의학회, 『한국현대의학사』, 1988.

의 재정으로 충당되었는데, 전체 사업기간(1955년 1월 1일-1962년 6월 30일)에 든 비용은 미국 국제협력본부의 자금이 약 950만 달러, 한국 측의 대충자금이 약 38억 원이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농업, 의료, 기술 등과 관련된 농과대학, 의과대학, 공과대학을 대상으로 했으며, 3개의 공식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첫째는 서울대학교에 필요한 장비와 용품을 조달하고 둘째, 서울대학교에 상주하는 특별 컨설턴트들이 강의와 교육 방법에 관한 계획 수립을 지원 조건했으며, 셋째, 각 영역에서 서울대학교의 젊은 교수진을 선발하여 1년 혹은 그 이상을 미네소타대학교 및 미국의 교육 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를 보내는 것이었다.⁶⁰⁾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농대, 공대, 의대를 중심으로 한 서울대 교수 요원 226명이 장단기 미국 연수를 다녀왔는데, 의학 분야에서는 모두 77명이 연수를 받았다.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결과로 서울대 의학 교육은 과거 일본식의 이론중심에서 미국식의 임상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평가된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이러한 미네소타 프로젝트 기간이 윤일선의 서울대 부총장, 총장 재임기간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과거 식민지 시기 윤일선은 일본 학계에서 배운 의학 지식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통해 제자들에게 전수하고 다시 그들을 제국대학 의학부를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의학자로 길러냈다. 윤일선은 해방된 한국에서 다시 후배 학자들을 새로운 보편으로 등장한 미국 학계로 보내는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 1953년 2월에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이들 가운데 이상국(李尙國), 백승룡(白承龍), 이인성(李寅誠) 등은 해방 이후 서울대가 개교한 뒤에 입학한 학생으로는 처음으로 병리학교실에 들어가 연구자의 길을 이어갔다. 병리학회 총무로 윤일선을 오랜 동안 보좌한 이상국은 1955년 8월 바로 이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미네소타 대학으로 연수를 떠났다. 백승룡도 뉴욕의 병행

60)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대한 개괄적 설명은 김성은, 「1950~60년대 미국의 교육원조와 미국 유학 선후-미네소타 프로젝트와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한국사회사학회, 2019, 199~203쪽을 참조.

튼 병원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교토제대 의학부를 정점으로 한 식민지 시기 이래의 윤일선 주도의 병리학 교실에서 일본식 교육이 미국식 교육으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차의 과정에서 윤일선은 혼종적인 방식을 모색했다. 윤일선은 해방 이후 미국식 과학 교육, 의학 교육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이를 기존의 일본식 교육과 조화시키고자 노력했다. 윤일선은 ‘일본계통, 독일계통에서 받은 과거의 교육’을 ‘이론’ 중시, 그리고 ‘미국의 교육방법, 혹은 영국계통의 교육’을 ‘실제’ 중시라고 분석한 뒤, “이론만 하고 실제를 모르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또한 실제만 치중해서 이론을 안보는 것도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의학에 대해서도 ‘임상의학적 방면’만이 아니라 ‘기초의학적 방면’에도 힘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였고, 나아가 의학 연구의 진보를 위해서는 ‘다른 관계 자연과학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⁶¹⁾ 홍종욱은 아카데미즘의 의학 교육에서 드러나는 식민지-주변부적 혼종성(hybridity)의 성격을 ‘식민지적 아카데미즘’과 연동하여 ‘후식민지(post-colonial) 아카데미즘’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윤일선의 삶의 궤적에서 우리는 지식 제도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적 조건 때문에 배태된 한국 근대 지식과 교육의 식민지적 성격과 더불어 그러한 조건을 타개하고 보편과 접속하려는 능동적 고투를 함께 읽어야만 할 것이다.

4.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정두현과 윤일선의 삶의 여정을 통해 제국대학 의학부-서울대학교 의과대학/김일성종합대학교 의학부(평양의학대학)로 이어지는 근대 한국의 의학 교육의 연속과 비연속의 양상을 검토했다. 사적으로는 사돈 관계였던 이들은 식민지 시기에 정치에 휘말리지 않고 과학에 투신했다는 공

61) 윤일선, 「전시의학론-전쟁과 의학」, 『戰時科學』 1-1, 1951.8.

통점과 더불어 성격적으로도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 김성진은 윤일선에 대해서 “윤 박사의 일과는 시계와 같이 정확하다. 규칙적이고 전형적인 그의 사생활은 스케줄 그대로 정리, 진행되었지 예외도 탈선도 없다. 아마 나를 보고 윤박사의 일기를 쓰라 하더라도 별로 틀림없이 쓸 수 있을 것이다”⁶²⁾라고 평가하고 있다. 윤치호는 자신의 사위의 형인 정두현에 대해서 “학자다. 동물학이 전공이고 생활면에서 굉장히 정확해서 사람들은 그를 기준으로 시계를 맞춘다고 한다”⁶³⁾고 인물평을 남겼다. 이러한 성격적 유사성 이외에도 이 둘은 또 다른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윤일선과 정두현은 시기는 약간 다르지만 일본의 고등교육 체계 안에서 제국대학 의학부를 정점으로 하는 교육의 순례를 거쳤으며, 두 사람 모두 경성제대 의학부에서 연구생활을 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또한 비슷한 좌절의 경험도 공유하고 있다. 윤일선의 경우 경성제대 의학부 병리학교실 조교수로 임용되었지만 민족적 차별 속에서 제국대학 아카데미즘을 떠나 세브란스의학전문으로 이직해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정두현도 도호쿠제대 졸업 이후 진행되던 이화여자전문학교 임용이 기호와 엘리트들의 훼방으로 중단되고 고향인 평양의 숭실전문학교로 취직의 방향을 돌려야 했던 좌절의 경험을 했다. 이 두 사람의 좌절의 경험은 식민지에서의 민족적 차별과 전통 사회 이래의 서북 차별이라는 차이를 지닌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사람 모두 기독교 계통의 사립 전문학교에서 활동했다는 것도 공공로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성격, 삶의 이력과 경험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그들이 놓여 있던 환경과 걸어간 길은 사뭇 다른 궤적을 보였다. 해방 이후 그들은 각각 경성대학 의학부장과 평양의학전문학교 교장직을 맡았다. 지역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연고가 있는 서울과 평양에서 식민지 고등교육 체계와 연속되는 기관을 토대로 새로운 의료 교육 기관을 창설하는 중추로 활동했다. 이후 펼치진 분단과 냉전의 전개 속에서 이들의 운

62) 김성진, 「한국의 석학② 윤일선 박사론」, 『思潮』 1-2, 1958.

63) 『윤치호 일기』(1931년 4월 6일자).

명은 부침을 겪었다. 윤일선은 새로운 보편과의 접촉을 도모했고, 서울대학교 부총장-총장으로 재직하는 중에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후배 의학자들을 재교육하고 한국의 의학 교육을 미국화, 서구화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정두현은 1940년대 후반 북한에 수입된 사회주의 소련의 주류 학설이었던 미추린-리센코주의에 대항했다가 의학계 및 공적 영역에서 축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윤일선과 정두현의 삶의 이력은 식민-분단-냉전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지식사의 굴곡진 한 단면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일성대학 10년사』, 김일성종합대학출판부, 1956.
- 김근배, 『정두현』, 김근배·이은경·선유정 편저, 『대한민국 과학자의 탄생』, 세로, 2024
- 김기석, 「국립서울대학교의 창설에 관한 일 연구」, 『일란성 쌍생아의 탄생 1946:국립서울대학교와 김일성 종합대학의 창설』, 교육과학사, 2001.
- 김성보, 『북한의 역사』 1, 역사비평사, 2011.
- 김성은, 「1950-60년대 미국의 교육원조와 미국 유학 선호-미네소타 프로젝트와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한국사회사학회, 2019.
- 김자중, 『한국 대학의 뿌리, 전문학교』, 지식의 날개, 2022.
- 김재웅, 『고백하는 사람들』, 푸른역사, 2020.
- 김태윤, 「북한 간부이력서를 통해 본 일제 말 사회주의 운동과 네트워크의 연속성: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독서회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2, 2020.
- 박형우, 「해방 직후 북한의 의학교육에 관한 연구: 평양의학대학을 중심으로」, 『남북한 보건의료』, 2002.
- 배만규, 「격랑 속에 흘러간 세월」, 『平齋』 19, 평의동창회, 1988.
- 양재섭, 「북한 생물학의 과학적 이데올로기 수입사:미추린주의와 계응상유전학의 공존」,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오천석, 『외로운 성주』, 광명출판사, 1975.
- 유연실, 「중화인민공화국 건설 초기 과학계의 사상투쟁-樂天宇의 미추린학설 수용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2022.
- 이타가키 류타, 『북으로 간 언어학자 김수경』, 푸른역사, 2024.
- 정중현, 「국어국문학과 조선어문학의 분단:설립 초기 국립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와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의 비교연구」, 『동악어문학』, 동악어문학회, 2021.
- _____, 「북으로 간 국문학자 신구현-경성제대 출신 독학자에서 주체문예학자가 되기까지」, 『인문논총』, 2024.
- _____, 「식민과 분단으로 서로를 지운 '평양의 형제:정두현과 정광현」 『특별한 형제들』, 휴머니스트, 2021.
- 장리욱, 『다시 읽는 장리욱, 백년 전의 꿈』,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 최혜월, 「미군정기 국대인반대운동의 성격」, 『역사비평』, 1988.
- 홍종욱, 「식민지기 윤일선의 일본 유학과 의학연구」, 『의사학』 27권 제2호, 2018.
- 永島廣紀, 「帝國の大學に學んだ朝鮮人學生」, 『韓國研究センター年報』22, 九州大學韓國研究センター, 2022. 3.
- 秦郁彦, 『舊制高校物語』, 文藝新書 355, 文藝春秋, 1982.

Yoon Il-sun and Chung Doo-hyun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Medical Education at Imperial University
and National Medical Schools in North and South Korea

Jeong, Jong-hyun*

This article aims to understand the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between the medical faculties of imperial universities and the national medical schools of North and South Korea by examining the lives of Yoon Il-sun and Jeong Doo-hyun, two important figures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medical faculti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Kim Il-sung University, respectively. I focus on Yoon Il-sun and Jung Doo-hyun because they graduated from the medical faculties of Kyoto University and Daihoku University, respectively, and were representative figures in the post-liberation medical community in North and South Korea, as well as playing a leading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medical faculties of both universities. In particular, they were related to each other in private, and their histories help us to understand that the issue of the National Seoul Alternative Wave and the movement of doctor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fter liberation was not just an ideological one, but also a complex intertwining of elitism, long-standing regionalism, and issues of generation and treatment. In particular, as the 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became entrenched and the Cold War began, Yoon Il-sun and Jeong Doo-hyun's lives and intellectual paths would be profoundly alter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respectively. Yoon Il-sun served as vice president and then president of the university, attracting the Minnesota Project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 Language and literature, Inha University

to Americanize South Korean medicine. In the case of Jung Doo-hyun, he rejected Michurin-Lysenkoism, which had been imported into North Korea, in favor of Mendelian genetics, and was pushed out of the medical and intellectual circles. The paths of these two men can be said to be a benediction of the process of reorganizing the medical and scientific knowledge of the empire (university) into the medical and scientific knowledg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during the Cold War.

Key words : Yun Il-sun, Jeong Doo-hyun, National University of Seoul Medical School, Kim Il-sung University Medical Department, Kyung Sung Medical School, Pyongyang Medical School, Continuation and Disruption of Higher Education System, Reorganization of Medical Knowledge in Cold War